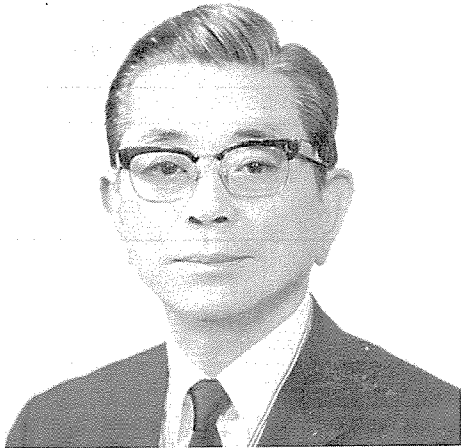


## 한평생을 電氣通信시설 건설에...



李 載 坤 先生  
(1905 - 1986)

李載坤先生은 1905년 3월 5일 平北 오산에서 遂安 李氏 가문에 태어났다.

항일운동의 격동속에서 1919년 平壤 高普에 진학하였는데, 뛰어난 학업성적 중에서도 특히 物理學에서 출중하여 과학적 자질을 나타내었다.

높은 學究熱에 부유한 가정이 뒷받침 되어 당당시 조선청년으로는 쉽지 않은 東京 유학생이 되어 早稻田大學 電氣工學科에서 通信工學을 전공하게 되었다.

새로운 학문에 전념하는 가운데에도 항상 조국을 생각하며 뜻있는 유학생들과 함께 정초에는 영친왕(李垠)께 세배를 거르지 않았으며, 영친왕의 격려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는 것이다.

1930년, 졸업과 동시 귀국하여 通信局에 취업하였는데, 그 당시 대학출신 조선인으로서 기술직 고급 공무원에 취임한 첫 케이스였다. 그로부터 선생은 電氣通信施設 건설의 최첨단에서 반평생을 앞장서게 되었다.

解放이 되자 잠시도 멈출 수 없는 通信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의 진력을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技術人力의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통감, 그 다음 해 서울大學校 工科大學 通信工學科 교수

로 부임한 이래 정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後學들을 길러내었다.

그들이 오늘날 產業界·學界·官界에 두루 퍼져 이 나라의 棟樑이 되고 있다.

政府가 수립된 다음해 1949년, 通信部는 다시 선생에게 中央電氣試驗所長겸 電務局長의 중책을 부족하니 결국 서울工大 교수직과 함께 얼마동안 1인 3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1959년 通信部의 관직을 떠나 그 후로는 평생을 教育에 전념하게 됐으며, 한편 1962년까지 10여년 간 電氣通信學會(현 電子工學會) 회장으로서는 전자·통신의 학술진흥을 위해 學界의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다.

선생은 學術을 비롯 產業발전의 기반 조성에도 공헌한 바가 컸으며, 1966년 工業標準審議會 위원장으로, 다시 1968년에는 韓國規格協會 회장에 취임, 우리나라 工業標準化事業을 先導하였다.

1971년 1월, 同和電子工業株式會社 창립과 동시 회장으로 취임, 同和계열이 5개 회사로 발전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後見人으로서 護念을 다하였다.

한편 1972년 우리나라 電子通信業界 여망에 따라 財團法人 韓國電氣通信產業研究所(현 通信政策研究所)를 창설하여 이사장에 취임하여 통신·정보의 社會科學的 연구와 조사·출판 등을 통하여 1984년에 이르기까지 12년간에 걸쳐 우리나라 電氣通信事業 발전에 기여하였다.

學界와 產業界에 대한 선생의 공헌을 기려, 1967년 「電氣의 날」有功者褒賞을 비롯하여 1969년 科學技術賞, 1971년 大統領表彰, 1972년 國民勳章 冬栢章 등이 수여되었다.

선생은 志操높은 선비의 家風을 이어받은 터에 또한 과학기술의 학문을 닦은지라 性品이 강직하면서 과학적 합리성을 겸비하여 일을 처리함에 사리판단이 빠르고 공과私家 분명하였으므로 항상 모든 後學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아 왔었다.

우리나라 電氣通信界의 元老로서 1986년 9월 30일 선생은 82세를 一期로 天壽을 마쳤다. 遺族으로는 2男 2女가 있다.

金 丙 熙

(前 財團法人 韓國電氣通信產業研究所 소장)